

주요 내용

1. [한국사회 갈등 실태]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2. 최근 언론보도 통계

1) 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2) 한국인의 음주 생활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든다고 믿습니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한국사회 내 갈등이 심상치 않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2021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89%)가 우리 사회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세대·지역·남녀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더 증가하였다. 특히 20대 대선을 앞두고 여성가족부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등 정책 공약으로써 젠더 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남녀 갈등은 우리 사회 갈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었다.

언론은 어떠한가. 국회에 이어 사회 갈등 책임도 2순위에 올랐다. 한 논문 자료¹⁾에 따르면 ‘언론과 같은 매개체를 통해 갈등 이슈가 사회적 쟁점화가 되면 갈등 자체가 통제 불가능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고 파괴적 갈등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이제 대선이 끝났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호남과 영남으로 나뉜 표심, 특히 20대 남녀의 극명한 표 대비는 한국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정권이 교체되면서 통합과 분열의 기로에 선 시점이다. 이번 선거 다음날 5개 일간지가 일제히 사설에서 ‘국민통합’을 헤드라인으로 뽑아서 강조하였다. 갈등의 실타래가 하나씩 풀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 사회의 사회 갈등 실태를 알아보고, 교회의 역할에 대해 조명하는 시간을 마련하였다.

1)한국사회복지연구회, 김용화·한창근,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1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1호, pp.10(임도빈·허준영, 2010 재인용)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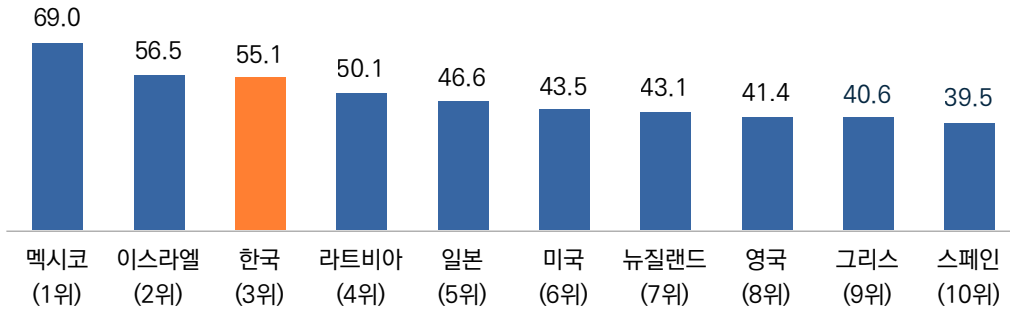


01

한국사회의 갈등 수준, OECD 회원국 중 3위로 상위권에 위치!

- ▶ 한국사회의 갈등 상황이 심각한 것은 주지하는 바인데,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작년에 OECD 30개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 갈등 지수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한국의 갈등지수는 55.1점으로 3번째로 높아 갈등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나타났다.

[그림] OECD 30개 회원국 갈등지수 (상위 10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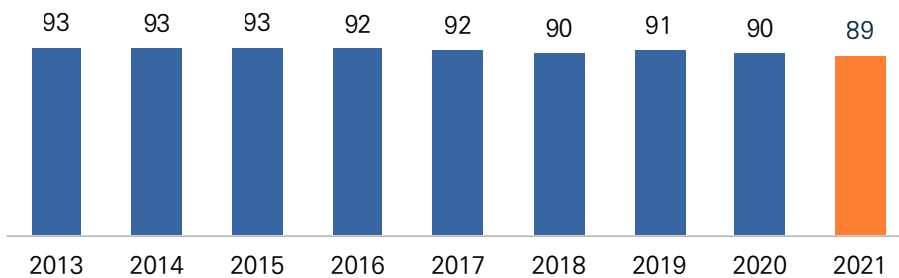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전국경제인연합회 보도자료, '국가갈등지수 OECD 글로벌 비교', 2021.08.19
 **갈등지수 수치는 정수가 높을수록 갈등 수준이 높음을 의미함.

◎ 우리 국민이 느끼는 한국사회 갈등, '심각하다' 89%

-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작년에 발표한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9명꼴(89%)로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반면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1%에 그쳤다. 이는 우리 사회 갈등이 상당히 심각함을 나타내는 지표로 볼 수 있다.
- ▶ 이러한 갈등의 심각성은 2013년 93%에서 2021년 89%까지 8년간 90% 안팎에서 변동없이 더 이상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갈등 수준 ('심각하다' 비율, 2013~2021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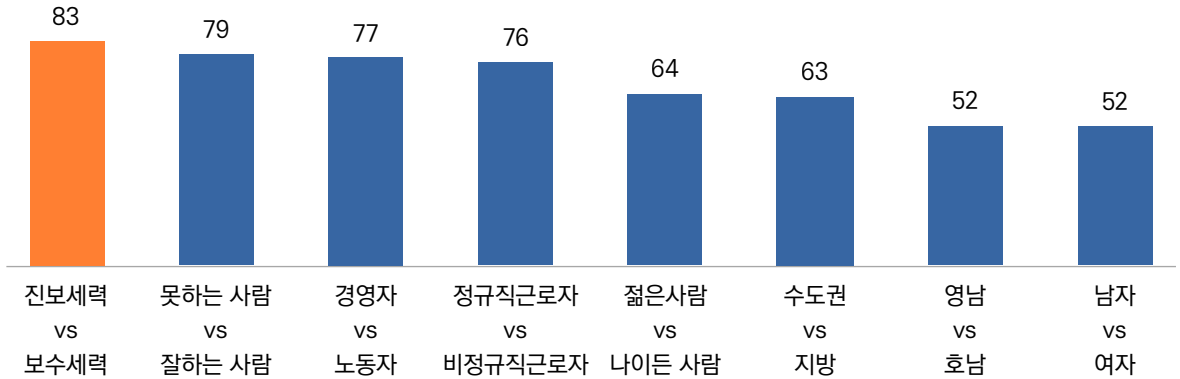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5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02

한국사회 모든 갈등 중 '이념갈등'이 1위!

- ▶ 2021년 기준으로 14개 집단을 제시하고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정도' 즉, 심각성 정도를 질문한 결과, 진보세력과 보수세력 간의 이념 갈등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83%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못사는 사람과 잘사는 사람' 79%, '경영자와 노동자' 77% 순이었다.

[그림] 우리사회 집단 간 갈등의 심각성 인식, '심각하다' 비율 (상위 8위, 2021년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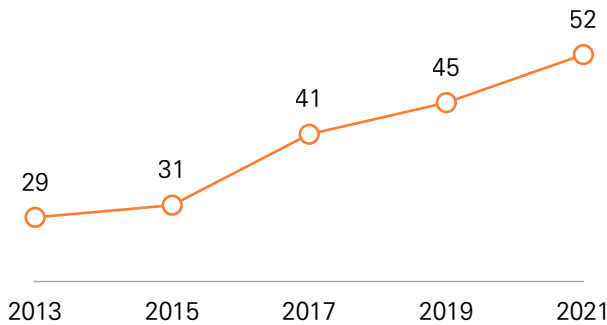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각 항목에 대해 5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 젠더 갈등, 모든 집단 중 갈등 증가세 가장 커!

- ▶ 2013년 이후 집단 간 갈등을 추적해 오면서 특히 다른 집단에서는 '심각하다'는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유독 젠더 갈등이 심각하다는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띄다. 즉 2013년 29%에서 2021년 5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남녀 간 갈등은 여가부 폐지 및 여성 징병 논란, 병사 월급 인상, 여러 미투(me too) 사건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 사회 주요 갈등으로 부각·인식되고 있다.

[그림] 젠더 간 갈등 '심각하다' (2013~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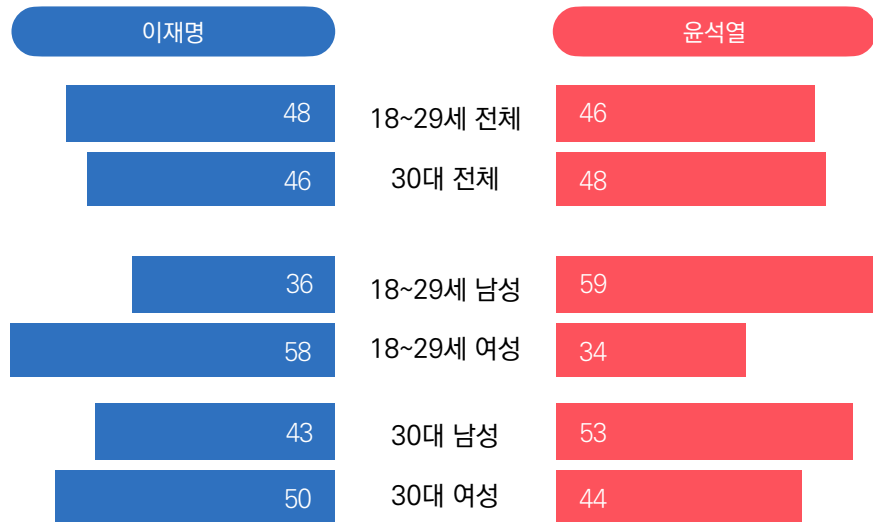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5점 척도 질문임('매우+약간 심각하다' 비율)

◎ 20대 대선 투표시, 20대 남녀 간 투표 성향 정반대로 나타나

- ▶ 이번 20대 대선에서도 2030세대의 투표성향이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남자는 윤석열 후보에게 59%가 투표했으나, 20대 여자는 이재명 후보에게 58%가 투표해 정반대의 투표행위를 보였다.
- ▶ 또 30대 남성은 윤석열 후보에게 53%가 투표했으나 30대 여성은 50%가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해서 역시 반대의 성향을 보였다.

[그림]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30 투표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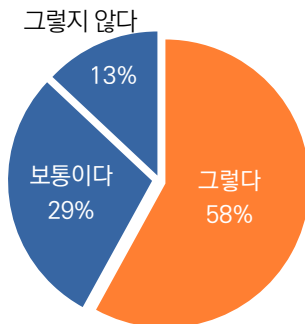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지상파3사(KBS/MBC/SBS), 20대 대선 출구조사 결과, 2022.03.09, (330개 투표소, 약 73,297명, 표본오차 ±0.8%, 한국리서치/입소스코리아/코리아 리서치인터내셔널)

03

한국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한 ‘공정한 중재자 없다’ 58%!

- ▶ 우리사회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정치권을 비롯해서 여러 사회적 주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갈등지수가 내려가지 않고 OECD에서 상위권에 있을 만큼 갈등이 여전히 심한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은 갈등 해소의 공정한 중재자가 없다(58%)는 점을 그 이유 중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그림] ‘우리나라에서 갈등이 많은 것은 그동안 공정한 중재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동의율,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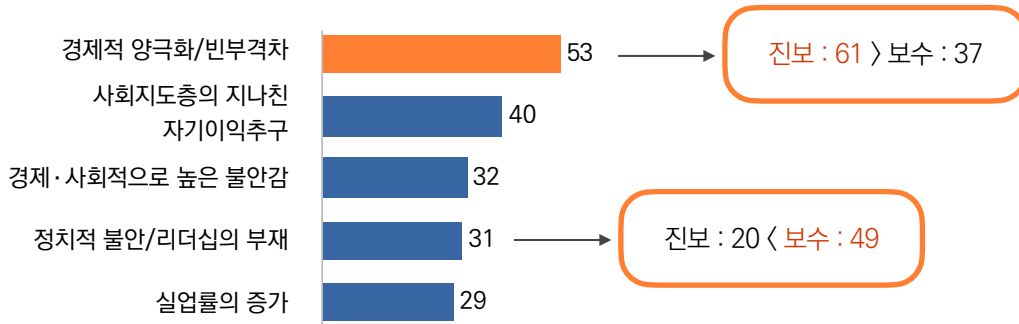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2021.07.28(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1)
**5점 척도 질문임(‘약간+매우’ 그렇다, ‘별로+전혀’ 그렇지 않다 비율임)

04

사회갈등의 원인, '경제적 양극화/빈부 격차' 1위로 꼽혀

- ▶ 사회적 갈등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적 양극화/빈부격차' 53%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와 같은 응답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20대 38%, 30대 51%, 40대 61%, 50대 62%) 더욱 높았다.
- ▶ 그 외에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사회지도층의 지나친 자기이익 추구' 40%, '경제·사회적으로 높은 불안감' 32%, '정치적 불안/정치적 리더십의 부재' 31%, '실업률의 증가' 29%를 꼽았다.
- ▶ 정치 성향별로 살펴보면 진보성향 응답자는 '경제적 양극화'(61%)에서, 보수성향 응답자는 '정치적 불안'(49%)에서 사회갈등의 원인을 찾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사회갈등의 원인 (상위 5위, 중복응답,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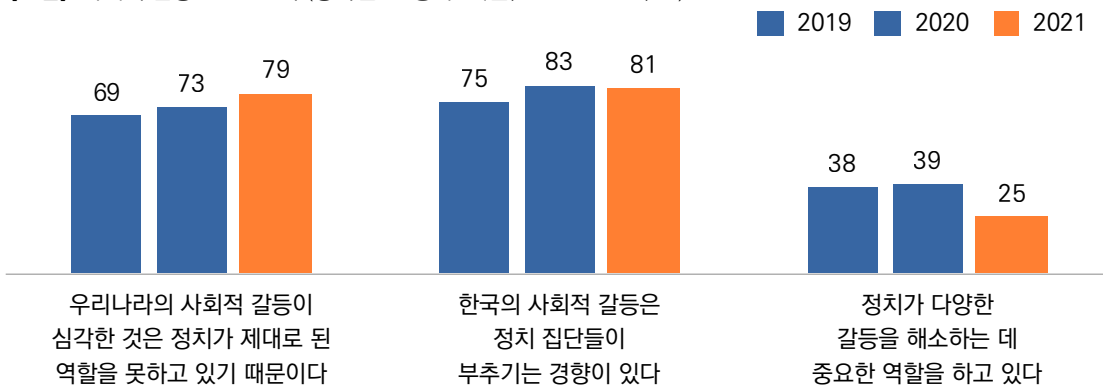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2021.07.28(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1)

05

국민 79% "사회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 못해서!"

- ▶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갈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 몇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동의여부를 물었는데, 대체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정치권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 우선 '한국의 사회적 갈등은 정치 집단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응답은 8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전체 10명 중 8명(79%)꼴로 우리나라 사회적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는데, 이 응답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만하다.
- ▶ 반면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에는 25%에 그쳤는데, 정치권이 사회적갈등을 해소하지 못하는 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림] '사회적 갈등' 관련 인식 (항목별 '그렇다' 비율, 2019~202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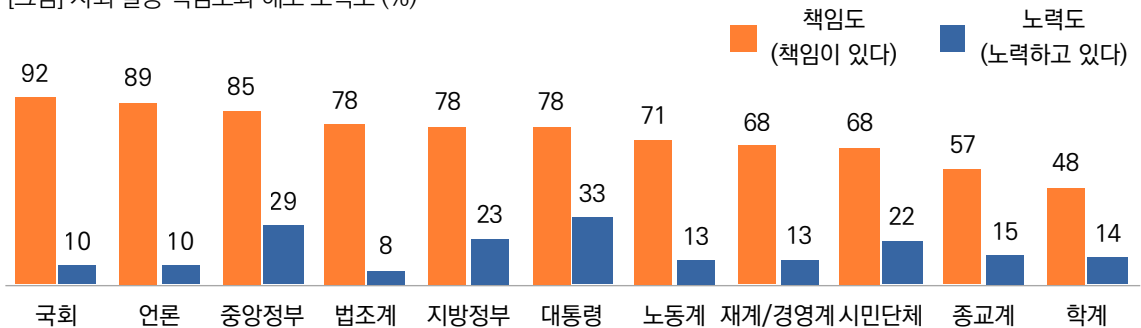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인식 조사', 2021.07.28(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06.17.-06.21)
 ** 5점 척도 질문임('약간+매우 그렇다' 비율임)

◎ 우리 국민은 사회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로 국회와 언론을 지적한다!

- ▶ 11개 집단을 제시한 후 현 사회 갈등에 누가 책임이 있는지를 물어보았다. 먼저 사회 갈등의 책임자로 국회(92%)와 언론(89%)이 90% 안팎의 높은 비율로 1~2위를 기록했다, 이어서 중앙정부 85%, 법조계 78%, 지방정부 78% 순이었다.
- ▶ 다음으로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누가 가장 노력하는지 물어보았는데, 대통령이 3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 중앙정부 29%, 지방정부 23%, 시민단체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국민들은 사회 갈등의 가장 큰 책임자인 국회, 언론, 법조계가 갈등 해소 노력은 잘 하지 않는다는 불신을 갖고 있었다.
- ▶ 대통령의 경우 사회갈등 발생의 책임도는 다른 집단 대비 상대적으로 높지 않으나,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도는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종교계는 노력정도에 있어서 15%로 11개 주체 중 하위권에 속했다.
- ▶ 시민단체는 책임도는 낮으면서 갈등해소를 위한 노력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림]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11개 집단: 국회, 언론, 중앙정부, 법조계, 지방정부, 대통령, 노동계, 재계/경영계,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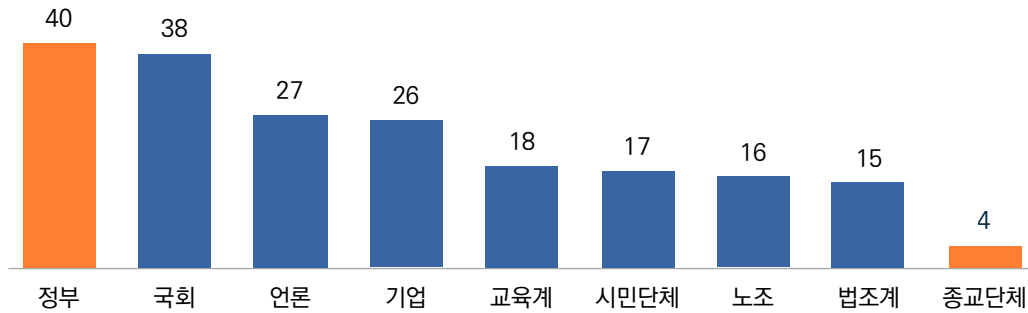
< 사회 갈등 책임도와 해소 노력도 Portfolio >



◎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주체, 종교단체 꼴찌!

- ▶ 이번에는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1+2순위)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정부가 4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회 38%, 언론 2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종교단체는 4%로 제시된 9개 주체 중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는데, 노조(16%)보다도 낮은 비율을 보였다.

[그림] 사회통합을 위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집단 (1+2순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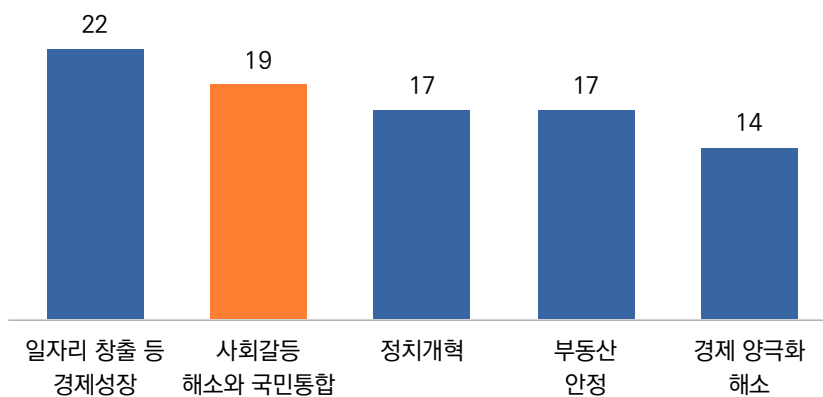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행정연구원, 「2021년 사회통합실태조사」, 2022.03.14.(2021년 현재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8,000명, 2021.09.01.~10.31,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자기기입식 조사)

06

차기 정부 국정 과제, 경제성장(1위)도 중요하지만... '갈등해소와 국민통합' 2위!

- ▶ 우리 국민들은 이번에 새로 출범할 새 정부에게 무엇을 원할까? 아주경제가 선거전에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 바라는 최우선 국정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이 22%로 차기 정부 국정 과제 1위였고, 그 뒤를 이어 '사회갈등 해소와 국민통합'(19%)이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했다.
- ▶ 이번 대선 과정에서 두드러졌던 '젠더·이념 등의 갈등' 문제를 봉합하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림] 차기 정부 국정 과제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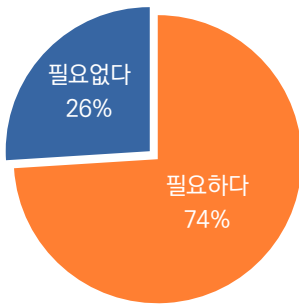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여론조사결과현황 등록번호 9103. (아주경제, 전국대통령선거 여론조사 결과, 2022.03.03.(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15명, 무선 ARS 조사, 2022.03.01.~03.02, 원지코리아)

◎ 차기정부,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 신설·운영 필요하다’ 74%

- ▶ 올 3월 대선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를 신설 및 운영하는 것에 대해 ‘필요하다’라는 응답은 74%로 ‘필요없다’는 응답(26%)에 약 3배 차이였다.
- ▶ 이는 국민들의 갈등 해소에 대한 열망을 보여줌과 동시에 사회적 대화와 공론화를 위한 기구가 그동안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사회적 대화와 숙의기구 신설 및 운영의 필요성



*자료 출처 :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한국리서치, 2021 한국인의 공공갈등 인식조사, 2022.01.21(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온라인조사, 2021.12.23.~12.28)

**숙의시민단 : 갈등 해소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쟁점을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기구

(예시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7674>, 인천일보, '500인'...공공의 갈등 현안 시원히 푼다, 2021.08.03.)

07

향후 한국사회 잠재적 갈등 이슈 : 혐오!

- ▶ ‘사회갈등’ 관련 이슈를 다룬 뉴스를 수집하여 텍스트 마이닝** 이라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를 추출, 키워드를 신호별로 구분하고 주요신호를 도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강신호’ 영역에는 경제, 대통령, 국가가 포함되어 있었고, 앞서 사회 갈등의 원인에서 1위를 차지한 경제적 양극화/빈부 격차, 부동산 대책, 집값 안정 등의 문제를 포괄하는 ‘경제’란 키워드가 포함되었다. 넓은 범위에서 보면 ‘경제’, ‘대통령’, ‘국가’ 모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관련된 키워드였다.
- ▶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영역에서는 한국사회 만성화된 갈등 이슈인 ‘정치적 요소’와 관련된 키워드였다. 앞서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것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라고 응답한 것의 연장선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 ▶ ‘잠재신호’ 영역에서는 특별히 ‘혐오’가 눈에 띈다. 사회와 타자에 대한 감정 상태를 보여주는 키워드로 이는 젠더 간 혐오, 지역 간 혐오, 세대 간 혐오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사회에 잠재되어 있던 혐오의 감정이 강화·표출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이는 앞서 세대·지역·남녀 간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향후 혐오가 갈등의 증폭제로써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인(sign)이다.

[표] 사회 갈등 이슈 키워드(빅데이터 분석)

구분	주요신호
강신호	경제, 대통령, 국가
약신호	마스크, 홍콩, 북한, 교회, 대응책, 확산
강하지만 증가율이 낮은 신호	정치, 갈등, 국민, 정부, 원내대표, 지역
잠재신호	혐오, 교육, 통합

*자료 출처 : 한국사회복지연구원, 김용희·한창근, COVID-19 확산 이후 한국사회 사회갈등 이슈와 미래신호 탐색: 국내 뉴스 기사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1 사회복지연구 제52권 제1호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란 텍스트 데이터에서 가치와 의미가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기법을 말함(<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210334&cid=42346&categoryId=42346>, 네이버 지식백과 IT 용어사전 참조)

한국 사회는 갈등이 심한 곳이다. 진보와 보수, 남성과 여성, 가진 자와 못가진 자, 경영자와 노동자, 수도권과 지방 등등 한국 사회 안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들이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가 갈등이 심한 곳이라는 인식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89%)이 하고 있다. OECD 국가 안에서도 갈등이 심한 곳 3위로 나타날 만큼 한국 사회의 갈등은 심각하다.(3쪽)

한국 사회가 갈등이 심한 것은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 주체 등이 없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란 사회의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 더 큰 분열로 변하지 않도록 조정해 줄 책임이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한다.(6쪽) 언론은 사회의 갈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어 사회가 그 갈등을 처리하는 바른 방향을 찾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언론은 오히려 갈등의 플레이어가 되어 갈등을 부추기는 경우도 많다.

종교는 어떠한가? 종교는 화합, 화해, 평화를 주장하므로 어느 사회에서나 국민들은 종교에 대해 사회 통합 기능을 기대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종교는 그러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고 국민들은 인식하고 있다. 사회 통합을 기대할 만한 주요 집단 9개 가운데 종교는 꼴찌를 기록하고 있다.(8쪽) 심지어 사회적 갈등의 당사자인 노조보다도 인정을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그러면 왜 우리 개신교(우리는 다른 종교는 생각할 필요 없으므로)는 사회 통합 기능을 수행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개신교가 사회 갈등의 주체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 갈등에서 한쪽 편을 들어 그 갈등의 수행자 혹은 촉진자가 된 것이 일부 개신교 그룹이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일부 목사들은 특정 후보를 노골적으로 지지하면서 정치 갈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었다. 갈등의 당사자가 된 집단이 통합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둘째는 사회통합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국민들이 종교단체의 사회통합 기능에 대해 기대감을 접었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가 국민들의 시각에서 통합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통합의 역할

을 했더라도 그 진정성을 인정받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셋째는, 개신교가 사회통합의 주체로 인정받을 만큼 신뢰가 없고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국교회 신뢰도는 21%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도 개신교인이 포함되었을 때이고 이들을 제외하면 9%에 불과했다.(넘버스 82호 참조) 비개신교인의 9% 밖에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가 사회통합에 나선다고 하면 냉소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개신교가 사회통합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우선은 개신교가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아야 한다. 한국교회가 신뢰받지 못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교회의 비도덕적인 모습 때문이다. 성범죄, 재정 문제¹⁾ 등등 연이어 터져 나오는 추문이 교회의 도덕적 권위를 훼손했다. 그러므로 우선 교회가 자정 노력을 기울여 사회에서 도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주체가 도덕적이지 않으면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된다. 교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게 하려면 우선은 우리가 도덕적이 되어야 한다.

둘째는 사회적 약자의 편에 서야 한다. 국민들은 종교의 기능으로 이 역할을 정말 기대하고 있다. 소외된 자들, 억울한 자들, 빈곤한 자들 편에 서서 그들을 대변할 때 한국교회는 사회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소외된 약자의 대변자가 되며 위로자가 될 때 한국교회는 사회적 권위를 인정받게 되고 사회적 발언권이 생긴다.

셋째는 이번 대선 다음날 국내 5대 일간지가 일제히 사설 헤드라인에 '통합'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새 대통령에게 분열된 사회를 통합하라는 메시지이다. 새 정부를 향한 국민의 목소리이다. 교회가 이념 논쟁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사회통합의 주체이면서 한편으로 새 정부의 사회 통합 기능을 돕고 선지자적인 견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가 우선 도덕성을 인정받고 사회적 권위를 부여받고, 사회통합의 주도적 역할과 대 정부 견제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우리가 세상을 화평케 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마5:9)

1) 목회자 성범죄, 교회 세습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은 「넘버스」 33호, 81호, 126호 참조

1.[코로나 이후 양극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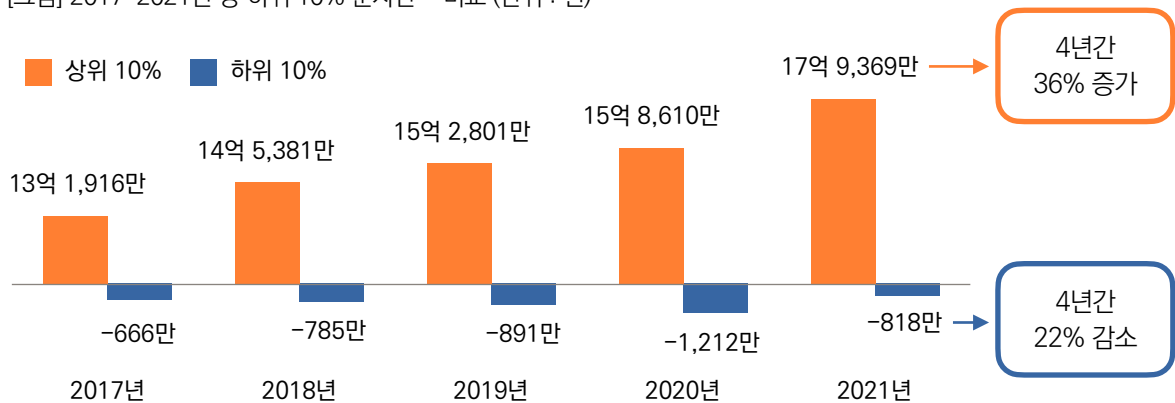
2.[한국인의 음주 생활]



2021년 우리나라 가구 순자산(자산-부채) 상위 10% 17억 9,369만 원, 하위 10% -818만원

- ▶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가구 상위 10%의 순자산(자산-부채)은 17억 9,369만 원이었다. 이는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대비 17% 증가한 수치이다. 상위 10% 가구는 코로나 이후에도 재산이 더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 ▶ 반면 하위 10%의 순자산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 2021년 기준 -818만 원이었다. 상위 10%의 순자산 격차가 코로나19 이후 더 벌어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017~2021년 상·하위 10% 순자산** 비교 (단위 :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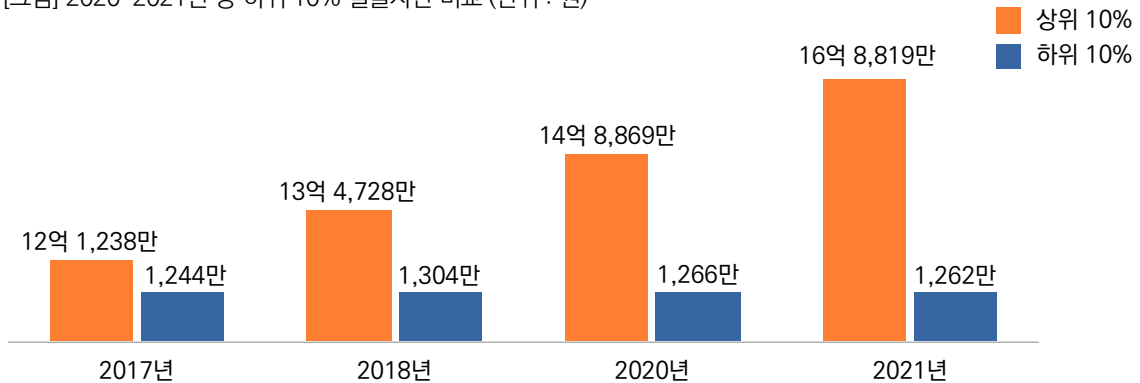


*자료 출처 : 추경호 의원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순자산= 자산-부채

◎ 상위 10% 순자산 중 82%가 실물자산인데 그 대부분이 부동산!

- ▶ 상위 10%의 순자산 증가 원인은 실물자산(비금융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에서 찾을 수 있다. 상위 10%의 실물자산은 2017년 12억 1,238만 원에서 2021년 16억 9,919만 원으로 4년간 무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 ▶ 반면 하위 10%는 실물자산이 2017년 1,244만 원, 2021년 1,262만 원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결국 부동산 가격 급등이 우리사회의 자산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2020~2021년 상·하위 10% 실물자산 비교 (단위 : 원)



*자료 출처 : 추경호 의원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실물자산은 비금융자산을 말하며, 부동산, 자동차 등을 포함한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6032953&cid=40942&categoryId=31810>)
***2019년 자료는 발표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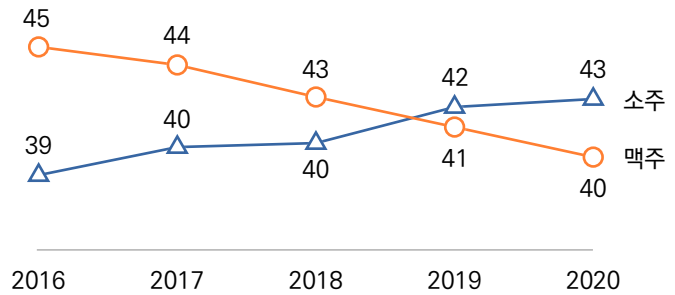
국내 주류 시장, 2019년부터 소주가 맥주를 추월, 2020년 기준 소주 43% 차지!

- ▶ 최근 발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2021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주류 시장 규모는 약 8조 8천억 규모이며, 맥주와 소주가 전체 주류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국내 주류 시장 규모



[그림] 소주 vs 맥주 점유율 추이 (2016~202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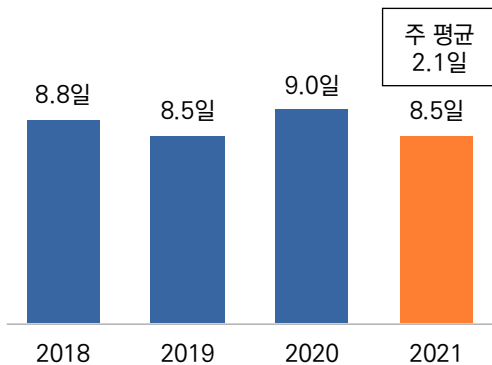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년 주류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
**위 주류시장 규모는 출고가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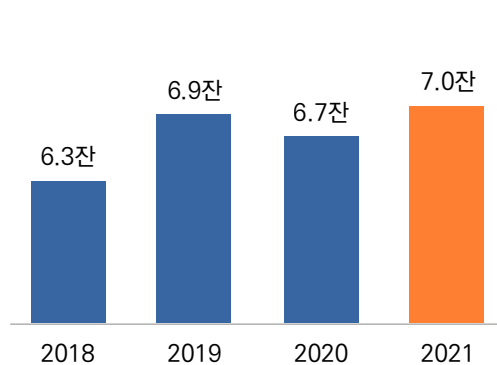
◎ 한국 성인 음주시, 1회 평균 소주 1병 정도 마셔!

- ▶ 지난해 한국 성인은 월평균 8.5일 술을 마셨는데, 이를 주 단위로 환산하면 주 평균 2회 이상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 ▶ 한번 마시면 평균 소주 1병 정도의 음주량을 보이고 있는데, 2021년 음주량은 2020년 대비 약간 증가했다.

[그림] 월평균 음주 빈도_2020~2021



[그림] 음주시 1회 평균 음주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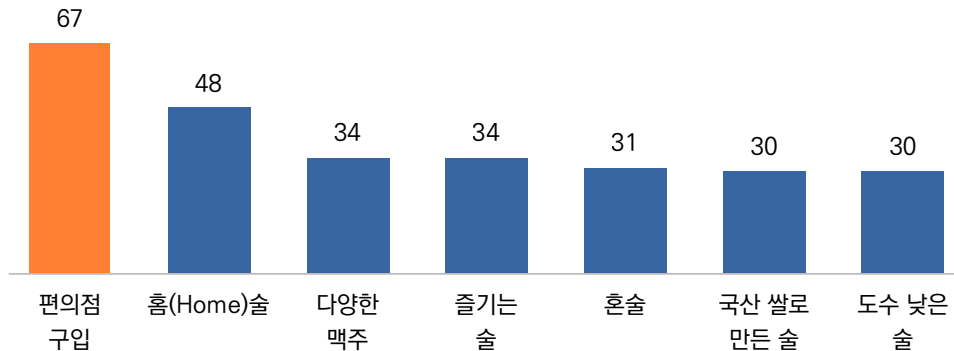
*자료 출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 2,000명, 2021.07.20.~07.30., 온라인조사)

**음주량 기준 : 소주 1병 7잔, 맥주 1병 1.5잔, 막걸리 1병 4.5잔 등으로 계산함

◎ 음주 트렌드의 변화, 편의점에서 맥주사서 집에서 혼자 마신다!

- ▶ 응답자 본인이 선호하는 주류 트렌드를 질문했는데 ‘편의점 구입’ 67%, ‘홈(Home)술’ 48%, ‘다양한 맥주’ 34%, ‘즐거는술’ 34%, ‘혼술’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편의점 구입과 홈술이 주류 트렌드로 인식되는 것도 코로나19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술을 즐기는 많은 사람들이 음식점이나 주점보다는 편의점에서 쉽게 다양한 종류의 맥주 등의 주류를 구입하여 홈술**과 집에서 홈술**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본인이 선호하는 음주 트렌드_2021년 (복수응답, 상위 7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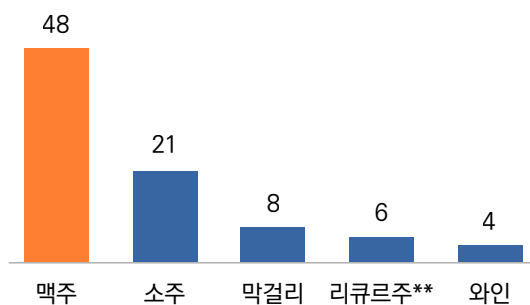
*자료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 2,000명, 2021.07.20.~07.30., 온라인조사)

** '홈술(Home+술)'은 집에서 술을 마시는 소비문화로, '혼술(혼자+술)'은 혼자 술을 즐기는 것을 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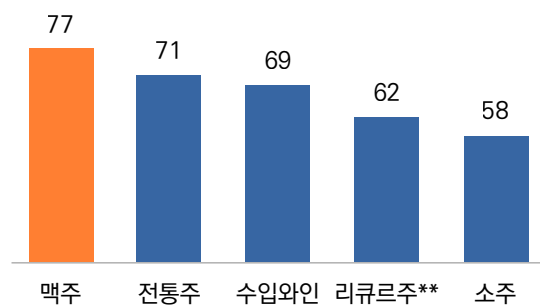
◎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술 1위, '맥주' 48%

- ▶ 가장 좋아하는 술을 질문한 결과, '맥주'가 4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소주' 21%, '막걸리' 8%, '리큐르주' 6%, '와인' 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 주종별 만족도 즉, 실제로 술을 마셨을 때 만족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하게 했을 때 4점 이상을 받은 비율(만족도)은 '맥주'가 7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전통주' 71%, '수입와인' 69% 등의 순이었다.

[그림] 가장 좋아하는 술(상위 5위, %)



[그림] 주종별 만족도 (상위 4위, %)



*자료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 2022.03.02.,(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중 월 1회 이상 주류 소비자이면서 6개월 이내 전통주 음용자 2,000명, 2021.07.20.~07.30., 온라인조사)

**리큐르주란 리큐어라고도 불리며, 증류주에 과일, 약초 등 다양한 성분을 첨가해 만드는 혼성주를 뜻한다.(<https://m.blog.naver.com/iiiiiooh2/220642853009>)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 정치

[제20대 대통령 선거/출구조사 종합 - 나무위키](#)

[대선 출구조사 결과는 왜 정확했나](#)

한겨레21_2022.03.11.

[2030세대의 절묘한 선택이 대선 승부 갈랐다](#)

시사저널_2022.03.11.

[MZ세대 10명 중 5~6명은 '이념 중도'...7명가량 "지지정당 없어"](#)

매일경제_2022.03.14.

[한국갤럽\(제20대 대통령선거 사후 조사\)](#)

한국갤럽_2022.03.10.

[대선 직후 2030女 입당 급증..."매우 이례적" 민주당도 놀랐다](#)

중앙일보_2022.03.12.

◎ 사회 일반

[대선 직전 SNS 사용자들 '남녀갈등 심각' 인식 ↑ ...지역갈등 ↓](#)

매일경제_2022.03.13.

[코로나에 사교육 격차도 커...고소득층·대도시·상위권일수록 ↑](#)

연합뉴스_2022.03.11.

[직접 흡연으로 하루 159명 사망...사회경제적 비용 12조원에 달해](#)

연합뉴스_2022.03.14.

[노인 빈곤율 처음 30%대 하락...그래도 여전히 OECD 최악](#)

조선일보_2022.03.08.

[미혼남녀, '동성결혼 합법화' 찬성 37%, 반대 32%, 관심 없음 31%](#)

스포츠키통_2022.03.10.

[그 아바타가 내 아바타에 몹쓸짓...처벌할 수 있을까](#)

조선일보_2022.03.10.

[빅데이터 분석, 올해 서울 이슈 키워드는 코로나·중대재해법·자율주행차](#)

연합뉴스_2022.03.14.

[여성기업 277만 '역대 최대'...고용 497만·기술창업 6.8% ↑](#)

파이낸셜뉴스_2022.03.14.

[국민 61% "北 정권·북한군, 안보 위협 적대적 대상"..."협력 대상"\(22%\)의 3배](#)

문화일보_2022.03.15.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코로나19 관련 통계〉

- 1) 코로나19(COVID-19) 실시간 상황판(국가별 비교) (<https://coronaboard.kr/>)
- 2) WHO(세계보건기구 홈페이지) (<https://covid19.who.int/>)
: 메인페이지 중간쯤 국가별 상황(Situation by Country)을 보면, 한국 상황을 볼 수 있음.
(3월 12일 현재 지난 7일간 확진자수 세계 1위)

[韓 신규확진 '압도적 1위'...전세계 확진 27% 한국서 쏟아졌다](#)

중앙일보_2022.03.14.

◎ 대학 / 청년

[북학생보다 나이 많은 25살 새내기 확 늘었다는데...그 이유는](#)

매일경제_2022.03.08.

[21학번, 20학번보다 원격수업 만족...동기들과 단절은 여전](#)

연합뉴스_2022.03.14.

["중국 어학연수 안갈래요" 유학생 반토막](#)

매일경제_2022.03.09.

["대기업보다 파충류숍"...밥벌이 대신 꿈 찾는 MZ세대](#)

매일경제_2022.03.13.

◎ 기독교 / 종교

[2021년 한국선교현황 통계조사 발표](#)

기독신문_2022.02.24.

[미국 크리스천 부모 4%만이 '성경적 세계관' 갖고 있다](#)

크리스찬타임스_2022.03.13.

◎ 리더십

[좋은 리더는 날마다 직원들과 '협상' 한다](#)

매일경제_2022.03.10.

[정체된 조직에 필요한 것은 '자극제'이다](#)

매일경제_2022.03.10.

◎ 기획기사 : [매경·신한카드 빅데이터 분석]

[회식, 법카 사라진 코로나 2년...그럼에도 매출 오른 식당 비결은](#) _2022.03.13.

[코로나에 창업 줄었지만...'취업난' 20대, '은퇴족' 60대 자영업은 늘어](#) _2022.03.13.

| 후원 교회 |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고현교회, 과천교회, 광림교회, 광주다일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노량진교회, 당진동일교회, 대구내일교회, 대전선창교회, 동부광성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문호교회, 미디에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부천명성교회, 백주년기념교회, 베다니교회, 빛과소금교회, 사랑감리교회, 삼천포교회, 새에덴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문교회, 서현교회, 선창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학대교회, 수원북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광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중앙교회, 안양감리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울림교회, 이룸교회, 일산광림교회, 일산세광교회, 전주기쁨의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앙성결교회, 지구촌교회, 진주삼일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탑동감리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성교회, 한소망교회(가나다 순)
천주교수원교구 호계동 성당

| 후원 기관 |

고려신학대학원,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재)기독교선교회복지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마을학연구소, 방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사단법인 아시안미션, 서대문ESF, 서울노회 아동부연합회(예장통합),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알파코리아,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장로회신학대학교, 지앤컬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목회, 한빛누리, 한국기부문화연구소, 햇빛회, CBMC 광주지식포럼, CBMC 행복한지회, CCC 사역연구소, GoodTV, IFCJ 가정의 힘(가나다 순)

| 후원 기업 |

(주)그랑블루, (주)리서치랩, 동광에스아이, (주) 마뜨, 메가리서치, (주)바이텍테크놀로지, (주)삼신테크, (주)셀파 C&C,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자연인(아이소이), (주)참든건강과학, (주)하츠(주)벽산, CNP코퍼레이션 (가나다 순)

| 후원 개인 |

강영원, 고영관, 고영수, 고인구, 고재환, 고현권, 구봉관, 구영생, 구정오, 금교성, 김관상, 김기혁, 김동하, 김명준, 김상근, 김상래, 김상로, 김석철, 김성열, 김성민, 김성은, 김숙정, 김시은, 김연진, 김영철, 김영훈, 김용섭, 김윤철, 김윤환, 김은선, 김은진, 김재욱, 김주룡, 김주형, 김지한, 김지현, 김현모, 김형태, 김호아, 김홍일, 김흥기, 계만석, 나광균, 남기환, 남성태, 류선자, 류지성, 문성준, 박건호, 박노석, 박명규, 박미경, 박상윤, 박세용, 박영철, 박영호, 박우빈, 박재찬, 박종철, 박종현, 박준상, 박준하, 박지훈, 박진규, 박진철, 박찬주, 박철호, 박현욱, 박형철, 박홍래, 반기민, 반상명, 방승기, 배수정, 백인범, 백인철, 서연우, 서재승, 서해현, 석승호, 석진호, 선원규, 성창민, 송 섭, 송으뜸, 신명자, 신인순, 신지현, 심기식, 안정호, 안태근, 양수민, 엄정석, 여삼열, 오수철, 우애라, 유성민, 유승우, 유형창, 윤동하, 윤여민, 윤영조, 윤치호, 이경만, 이국희, 이광호, 이대식, 이덕희, 이만민, 이미경, 이병희, 이삼열, 이상호, 이성근, 이성수, 이승진, 이승철, 이영선, 이완중, 이요셉, 이윤찬, 이은라, 이인성, 이일영, 이재열, 이정규, 이정아, 이조형, 이주일, 이지형, 이창준, 이창현, 이창형, 이춘봉, 이 현, 이현구, 이현식, 이호택, 이훈희, 이희석, 임성빈, 임현주, 장명희, 장병우, 장부식, 장성진, 장우성, 장재영, 장형철, 전병철, 전용림, 전지영, 정기목, 정부활, 정용철, 정종권, 정종섭, 정 준, 정하규, 정희수, 조병길, 조용민, 조의환, 조준환, 조창오, 주학선, 지용선, 지중배, 진범수, 지현일, 차용현, 천성환, 최명영, 최상도, 최상현, 최용기, 최은아, 최 준, 최준혁, 최태영, 최현갑, 한병록, 한재용, 한진광, 한홍근, 함용태, 호재민, 홍익숙, 홍현풍, 홍혜숙, 황태기, Clara Yoon(가나다순)

| 후원 방법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안내 : 하나은행 203-910046-18604(목회데이터연구소)



| 미션 |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 협력기관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 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 섬기는 이들 |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신원하 교수 | 연구자문위원장(고려신학대학원 원장)

| 만든 이들 |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ykji@mhdata.or.kr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marpro@mhdata.or.kr

민선영 | 목회데이터연구소 연구원 | symin83@mhdata.or.kr

유영민 | 목회데이터연구소 간사 | mhdata@mhdata.or.kr

| MOU 기관 |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총회, 마크로밀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 새일, 아드폰테스, (사)아시안미션, 크리스찬타임스,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